

한국어 2차 기본 색채어의 사용 양상

이 수 연 *

I. 서론

흔히 한국어의 어휘 의미를 논할 때, 색채어가 매우 다양하고 그 의미가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발그스름하다, 빨갳다, 벌겍다, 불그죽죽하다’ 등 ‘빨갳’이라는 한 가지 색이 명도, 채도, 긍정과 부정의 느낌 등에 따라 다양하게 파생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도 풍부하여, 송철의(1992), 정재윤(1988) 등에서는 색채어의 파생과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었고, 손세모돌(2000), 엄훈(2000), 신현숙·김영란(2004)에서는 색채어 파생어들의 의미 차이를 논의하였다. 구본관(1998), 이선영(2006, 2008), 이병기(2002), 김주필(1995) 등에서는 색채어의 통시적 발달을, 정인호(1999)에서는 방언에서의 색채어를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항상 한국어의 고유어 색채어인 빨갳, 파랑, 노랑, 검정, 하양의 5가지 색채와 관련된 어휘들이었다. 한국어에는 이 색채어 어휘들 이외에도 분홍색, 보라색, 갈색, 회색, 주황색, 연두색 등 더 다양한 색채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고유어가 아니고, 다양한 파생어형을 보이지 않으며 기본색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한국어 단어 형성 연구에서도, 그리고 색채어 연구에서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 5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채어도 엄연히 한국어에 존재하는 색채어이다. 이 색채어들도 언중이 색채의 인상을 판단하고 분류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한국어 어휘인 것이다. 따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는 음성보다 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의 숫자가 훨씬 적은 것처럼 색채의 경우도 색채어보다 실제 존재하는 색채가 훨씬 더 많다. 적은 수의 색채어로 더 많은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화자들은 색채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동원하거나 합성 또는 파생의 방법을 쓰게 된다. 따라서 실제 언어 자료에서 관찰되는 색채어의 사용 양상은 사전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을 띤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바로 기본 색채어를 제외한 색채어들의 다양한 사용 양상에 관한 것이다. ‘기본 색채어를 제외한 색채어’의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연구 목록을 확정하고, 그 사용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기본 5색을 제외한 색채어’를 ‘2차 기본 색채어’로 명명하고, 그 목록을 2장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색채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다.¹⁾ 이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색채어의 사용 양상은 3장과 4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색채어들의 합성에 관해, 4장에서는 색채어의 파생에 관해 관찰하여 2차 기본 색채어의 독특한 사용 양상에 대해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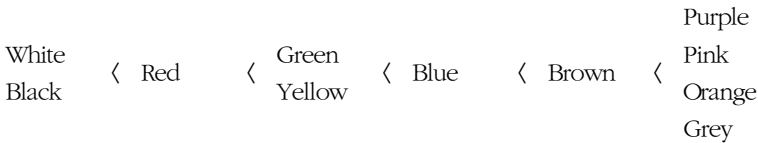
2. 2차 기본 색채어의 개념과 목록

기존 연구에서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까망의 5색을 ‘전통색’, ‘고유색’, ‘기본색’, ‘오방색’ 등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5가지 색이 ‘전통

1) 누구나 글을 쓰고 또 누구나 그 글을 볼 수 있으며 간단한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은 마치 대용량 말뭉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오자나 잘못 사용된 용례들이 존재하고, 개인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언어 자료의 사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검색되는 용례라고 하여도, 3회 이상 다른 사용자들에게서 사용된 용례가 존재할 때에만 이를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용한 검색 사이트는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구글(www.google.co.kr)이다.

색’, ‘고유색’으로 칭해지는 것은 이들이 고유어로서 한자어 색채어나 차용된 색채어와는 어원적으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색채의 기본을 이루는 색상이기도 하므로 ‘기본색’으로 칭해지고 있다. ‘기본색’의 개념은 Berlin and Kay(1969)와 Saeed(2003)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기본 색채어(Basic colour terms)는 단일어²⁾여야 하고, 하위어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개념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며,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터키색(turquoise)’, ‘금색(gold)’ 등은 기본 색채어가 될 수 없으며, ‘청회색(brue-grey)’, ‘주홍색(scarlet)’ 역시 기본색이 될 수 없다. ‘금발(blonde)’과 같은 용어도 색상을 나타내지만 머리색에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기본 색채어가 될 수 없다.

기본 색채어에 대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색채어에 계층(hierarch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범언어적으로 기본 색채어는 2개부터 11개까지 존재하는데, 이 기본 색채어는 개수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즉 기본 색채어가 2개인 언어는 까망과 하양이 기본 색채어이고, 3개인 언어는 여기에 빨강이 추가 된다. 4개, 5개가 되면 초록(Green)과 노랑이 추가되고, 6개가 되면 파랑(Blue)이 추가된다. 기본 색채어가 3개인데 ‘빨강, 노랑, 초록’을 가지는 경우는 없으며 ‘하양’과 ‘까망’을 가지지 않는 기본 색채어 체계는 없다. 이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는 5개이므로 ‘하양, 까망, 빨강, 초록, 노랑’을 가져야 하겠지만, 한국어는 ‘초록’ 대신 ‘파랑’을 가진다. 이렇게 언어권 마다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2) 한국어의 경우에는 기본 색채어 명사들이 모두 단일어는 아니다.

한국어 고유어의 ‘푸르다’가 청색과 함께 녹색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가 한국어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5가지 색채어 외의 ‘주황색, 연두색, 초록색, 청록색, 남색, 보라색, 자주색, 분홍색, 갈색, 회색’ 등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색들 역시 하위어가 아니며, ‘하늘색’, ‘레몬색’처럼 색채 자체가 아닌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 색채어로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들은 고유어가 아니고 파생 양상에 있어서도 고유어 색채어와는 차이를 가지므로 이들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이 ‘초록색, 갈색, 보라색, 분홍색, 주황색, 남색, 회색’ 등의 색채어에 일정한 명칭을 부여한 연구는 드물다.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2005)에서 선정하고 있는 ‘우리말 표준 색이름’에서는 고유어 5색 외에도 이들을 포함시켜 ‘표준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어 표준 색채어를 기본색과 계통색으로 나누고 기본색으로 ‘빨강, 연두, 파랑, 자주, 하양, 주황, 초록, 남색, 분홍, 회색, 노랑, 청록, 보라, 갈색, 검정’을 뽑았다. 계통색은 ‘기본색이름과 수식형용사의 체계적인 결합에 의한 색’으로 정의하고 모든 색을 이 계통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빨간 주황’, ‘진한 빨강’ 등의 색 이름을 통해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병아리색, 키위색 등 색채 자체가 아닌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를 통해 색채를 나타내는 단어는 ‘관용색’으로 명명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어 색채어 연구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해오던 ‘기본색 = 5색’이라는 등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기본색’에 5색 이외의 다양한 색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색채어들에 대한 명칭 역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통색’이라는 명칭도 정확하지 못하다. ‘남색, 주황색, 분홍색’ 등의 색채어는 근대국어 시기에서부터 확인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점만으로 이들이 전통적이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빨강, 파랑, 노랑, 까망, 하양’이 고유어라는 점에서 이들을 고유어 5색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겠지만, 이와 구별되는 ‘보라색,

갈색' 등을 모두 한자어라고 할 수 없다. '보라'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이다.³⁾ 이선영(2008)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방색'과 '혼합색'이라는 명칭도, 오방색의 경우는 적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혼합색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갈색'을 오방색 중 어떤 색들의 혼합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색채명을 통해 그 색채가 어떤 색채의 혼합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신현숙·김영란(2004)에서는 '기본색'과 '확장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본'과 '확장'이라는 개념이 적절히 대조된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지만, 이 확장색의 개념에 '레몬색, 올리브색'과 같은 색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색은 그 논의 대상이 본고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레몬색, 하늘색'과 '갈색, 분홍색' 등은 층위를 달리해서 논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색채어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한국어 색채어를 체계화하고 그에 걸맞은 용어를 각각 부여한 업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술표준원 화학응용 표준과의 '우리말 표준 색 이름 체계'의 용어들을 수정하여 받아들이고자 한다. 기본색에 고유어 5색 외에도 많은 색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하양의 5색을 1차 기본색으로 설정하고, 그 외 '하위어가 아니어야 하며, 다른 개념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며,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황, 연두, 초록' 등의 색채어를 2차 기본색으로 칭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색채어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류		색 이름
기본 색채어	기본 1차 색채어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기본 2차 색채어	주황, 연두, 초록, 청록,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회색
관용 색채어		하늘색, 병아리색, 레몬색, 키위색 등

이 때 위의 표에서 '기본 2차 색채어'에 해당하는 10가지 색채어가 본고

3) '보라'를 고유어로 보는 논의로는 이은섭(2006), 이선영(2008) 등이 있다.

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이 색채어는 Berlin and Kay(1969)와 Saeed(2003)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색채어의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그동안 한국어 색채어의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2005)의 보고서에서 한국 표준 색채어로 인정받기는 하였지만 음성상징에 의한 모음대립이 나타나지 않고, 그와 짝이 되는 색채어 형용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유어 색채어와는 차이를 가진다.

3. 2차 기본 색채어의 합성

2차 기본 색채어 중에서도 ‘남색, 갈색, 회색’은 다른 ‘분홍색, 주황색, 연두색’과는 그 특성이 조금 다르다.

- (1) ㄱ. 다른 색상은 없어요?
 ㄴ. 분홍/주황/연두/청록/초록/보라/자주 있어요.
 ㄴ'. 남/갈/회 있어요.

위 예문에서도 볼 수 있듯, ‘남색, 갈색, 회색’은 ‘색’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이은섭(2006: 110)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 ‘남, 갈, 회’가 어근으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갖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고 이들의 자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접사(접두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색, 남색, 갈색’의 ‘회, 남, 갈’은 단어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변부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색채어로서 색상을 담당하는 중심부의 역할을 하므로 이들을 접사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노명희(2004)에서도 한자어 2자어의 1음절 구성원은 어근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및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접사라기보다는 어근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 남, 갈’은 다른 색채어와의 어울림에 있어서 다른 색채어와 차이를 보인다. ‘연두노랑, 청록보라’와 같은 합성어는 쓰이지 않았는데, ‘회색, 남색, 갈색’은 다른 색채어와 잘 어울려 사용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다

른 색채어와 어울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2) ㄱ. 꽃은 6~8월에 피고 길이 8mm로서 남갈색이며
 - ㄴ. 그곳에서 나오는 빛은 거의 없고 곧 저물 예정이라는 것은 갈주황으로 물든 벽을 보고 알 수 있다.
 - ㄷ. 줄기는 적갈색 또는 회연두색이다.

‘남갈색’, ‘갈주황’, ‘회연두색’ 등은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말뭉치나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서도 활발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 갈, 회’가 모든 색채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⁴⁾ 아래의 표는 ‘남, 갈, 회’가 2차 기본 색채어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 결합 형태가 활발히 쓰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뭉치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중 ‘남보라, 남자주, 갈회색, 회갈색’은 현재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 목록이다.

	주황	연두	초록	청록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회색
남	*남주황	*남연두	남초록	남청록		*남보라	*남자주	*남분홍	남갈색	남회색
갈	갈주황	*갈연두	*갈초록	*갈청록	*갈남색	*갈보라	*갈자주	*갈분홍		*갈회색
회	회주황	회연두	회초록	회청록	회남색	회보라	회자주	회분홍	*회갈색	

‘남색’의 ‘남’의 경우 ‘*남주황, *남연두, *남분홍’색이 존재하지 않고 ‘남초록, 남청록, 남보라, 남자주, 남회색, 남갈색’은 사용되고 있었다. 남색은 색상이 뚜렷하고 푸른 계열이므로 푸른색 계열의 색상인 초록, 청록, 보라색과 잘 어울리며 회색이나 갈색과도 잘 어울렸다. 그러나 주황, 분홍 등 붉은 계열이나 상대적으로 연한 색감인 ‘연두’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푸른 계열 색감의 채도를 높여 더 진한 색을 표현하거나, 보라나 자주처럼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경우의 푸른 색감을 더해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4)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의 중심 논의 대상인 2차 기본 색채어와의 결합만을 표로 보인다.

수 있다.

‘갈색’의 ‘갈’은 ‘갈주황’과 ‘갈회색’이 사용되고 있을 뿐, 다른 색상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갈회색’이 사전에 등재된 반면 ‘갈주황’은 사용빈도가 낮아 그 지위가 확고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고유어와 결합한 ‘갈빨강’, ‘갈파랑’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갈색이 붉은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과는 제한적으로만 어울리는 것이다. 붉은색 계열이라도 ‘갈빨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색을 나타내는 색채어로는 관용 색채어인 ‘벽돌색’이 활발히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회색’의 경우 앞의 두 단어와는 달리 모든 색과 활발하게 잘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색상에서도 회색은 색상의 채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채도가 낮은 색상을 표현하는 데 ‘회’를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회’는 고유어 어휘와도 잘 어울리므로⁵⁾ 비교적 그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갈색의 ‘갈’은 다른 색상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갈고등어, 갈뚝’과 같은 단어를 파생시키므로 사전에도 접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이은섭(2006: 110)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들의 의미도 접사적 성격을 내포한다. ‘청회색’과 같은 단어가 ‘청색을 띠는 회색’이므로 청색과 회색이 동등하게 결합한 [[YX]색]의 구조가 아니라 [Y[X]색]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사전에 올라와 있는 ‘남자주, 회갈색, 갈회색’의 의미는 각각 ‘남빛을 띤 자주색, 회색빛을 띤 갈색, 갈색을 띤 회색’이므로 이 두 색이 동등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라 ‘자주색’에 ‘남색’이 결합하고, ‘갈색’에 ‘회색’이, ‘회색’에 ‘갈색’이 결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할까? ‘남, 갈, 회’를 접사라고 하기에는 ‘갈’이나 ‘남’의 경우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며, ‘회’도 몇 개의 색채어와만 결합하고 있으므로 그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또

5) ‘회붉다, 회푸르다’는 활발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회빨강, 회파랑’ 등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빨강’과 ‘파랑’은 ‘붉다, 푸르다’ 보다 채도가 높고 선명한 색감을 나타내므로 채도를 낮추는 색인 회색과 동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이 ‘남색, 갈색, 회색’의 색채명으로 쓰일 때에는 이들을 결코 접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결합한 단어도 파생어가 아닌 복합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명희(2004)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1음절 한자어에서 접두사와 어근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구별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면이 많다. 노명희(2004)에서는 완전한 접두사가 아닌 경우도 접사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어근으로 보더라도 다른 1음절 어근과는 구별하여 ‘약활성어근(접사적어근)’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남, 갈, 회’도 원래 어근이지만 접사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접사적어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노명희(2004)에 따르면 약활성어근은 국어의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단어의 구성요소로만 쓰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보이지 않으며 고유어 접사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구 구성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특한 범주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한자어 어근은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그 발달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 내부의 어근들도 모두 그 발전 방향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4. 2차 기본 색채어의 파생

앞 절에서 2차 기본 색채어가 1차 기본 색채어와 다른 점으로 음성 상징에 따른 모음대립이 나타나지 않고, ‘-양/-영’에 의한 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에 ‘새-/시-, 셋-/셋-’에 의한 파생 및 ‘-스름하다’ 등에 의한 파생도 1차 기본 색채어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기존의 중론이었다.

그러나 실제 2차 기본 색채어의 사용예들을 살펴 본 결과 이들과 ‘셋-/셋-’과의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3) 가. 연두색의 피그먼트는 너무 셋연두라 엄하지 않을까 했는데 골드필이 자잘한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나. 셋보라색을 사랑하는 천일홍은 건조해도 그 색상이 많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 게다가 색상도 셋노랑, 셋분홍, 셋자주. 20대 중반까지라면 예쁘게 소화해낼 수 있겠지만…

(4) 페인트가 완전 신초록색으로 보이네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셋-/잇-’과 결합하는 2차 기본 색채어들이 존재한다. 파생된 어형의 의미는 원래 색채어보다 좀 더 선명하고 진함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은 한자어이므로 진하기, 선명함 등의 자질을 더하기 위해서는 ‘셋-/잇-’이 아닌 ‘선(鮮)-’이 결합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예를 살펴보면 ‘선-’이 잘 결합하는 2차 기본 색채어가 있고, 이들과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색채어도 있다.

- (5) ㄱ. 수피(樹皮)는 선희색(鮮灰色)이며 분지(分枝, 가지치기)는 촘촘한 편이다.
- ㄴ. 선분홍색이면 정상적인 허의 색이 맞습니다.
- ㄷ. 자실체표면은 회황 또는 적황색이나 나중에 선갈색 또는 계피색으로 되고, 포자는 타원형이며 탄력성이 있다.

‘선주황, 선분홍, 선갈색, 선희색, 신초록색’ 등의 예가 나타나고 *선연두, *선청록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셋-/잇-’과 ‘선-’이 모든 2차 기본 색채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들 접두사에 의한 파생 양상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황	연두	초록	청록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회색
새-	*새주황	*새연두	*새초록	*새청록	*새남색	*새보라	*새자주	*새분홍	*새갈색	*새회색
셋-	*셋주황	*셋연두	*셋초록	*셋청록	*셋남색	*셋보라	*셋자주	*셋분홍	*셋갈색	*셋회색
시-	*시주황	*시연두	*시초록	*시청록	*시남색	*시보라	*시자주	*시분홍	*시갈색	*시회색
잇-	*잇주황	*잇연두	*잇초록	*잇청록	*잇남색	*잇보라	*잇자주	*잇분홍	*잇갈색	*잇회색
선(鮮)-	*선주황	*선연두	<u>선초록</u>	*선청록	*선남색	*선보라	*선자주	*선분홍	<u>선갈색</u>	*선희색

위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셋-/잇-’ 및 ‘선-’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채어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새-’와 ‘시-’가 결합하는 2차 기본 색채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잇-’이 결합할 수 있는 색채

어는 ‘잇초록’ 뿐이었다. 대부분의 색채어가 ‘쌔’와 결합함을 알 수 있었고 갈색, 회색은 ‘선’과만 결합하는 점이 특이하다. 또 ‘청록, 남색’은 진하거나 선명함을 더하는 접사와 잘 결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남색’이나 ‘청록색’이 ‘진한 파랑’이나 ‘푸른색을 띤 녹색(녹색보다 더 채도가 높은 푸른색이 섞였음)’을 나타내어 그 자체로 진한 색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 접사의 결합이 잉여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선’과 결합하는 ‘선주황, 선분홍’과 ‘쌔’와 결합하는 ‘쌔주황, 쌔분홍’이 함께 존재하며 ‘쌔’와 ‘잇’의 결합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이들이 미묘하게나마 의미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나타나는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 (6) ㄱ. 송어는 일단 살코기 색부터 선주황색으로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ㄴ. 감나무에는 쌔주황 홍시가 ‘나잡아잡수’하고 십리 밖의 거울철새를 꼬드기는…
- (7) ㄱ. 잇몸성형으로 반짝반짝 선분홍 잇몸 갖는 방법
 ㄴ. 실물의 꽃빛깔은 사진의 빛깔보다 훨씬 더 예쁜 쌔분홍색입니다.
- (8) ㄱ. 선초록색에 부드러운 선의 느낌이 전해집니다.
 ㄴ. 그렇다고 너무 쌔초록말구요 약간 툰 다운된 초록이면 좋겠네요.
 ㄷ. 잎색도 심하게 녹색이 된 것 같아요 애플민트의 매력적인 연둛빛 잎사귀가 아니라 아주 잇초록(?)하군요.
 ㄸ. ㄱ. 페인터가 완전 잇초록색으로 보이네요.

아직 ‘선’은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선’이 결합된 단어도 ‘선홍색’만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밝고 신뜻한 붉은 색’이라는 것이다. 즉 ‘선’은 단순히 명도나 채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밝고 신뜻하다’는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또한 ‘선주황, 선분홍’을 ‘쌔주황, 쌔분홍’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선’이 결합한 단어들은 주로 잇몸, 입술, 혀 등 신체 부위나 동물의 살코기를 의미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꽃잎이나 불빛을 나타낼 때도 ‘선’이 결합하기도 하였지만, ‘쌔’이 신체 부위나 동물의 살코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 ‘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어기에만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선-’과 ‘셋-’, ‘잇-’을 비교해 보았을 때, 더해지는 진하기나 선명함의 정도가 ‘선-’이 가장 약하고 ‘잇-’이 가장 강하다는 어감도 느낄 수 있다. (9)의 예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선-’보다는 ‘셋-’이 더 진한 느낌을 주고 ‘잇-’은 ‘완전, 심하게, 아주’ 등의 부사어와 함께 쓰여 강하고 극단적인 색상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의도가 느껴진다. 그러나 ‘잇-’이 대부분의 2차 기본 색상어와는 어울리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진하기나 선명함을 더할 때에는 ‘셋-’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과 ‘갈색’이 ‘선-’과만 어울리는 것도 이들 색상 자체가 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명하고 짙음을 나타내고자 하여도 ‘셋-, 잇-’과 같은 어감이 강한 접두사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새-/시-’, ‘셋-/잇-’의 파생어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각각의 파생 접사들의 의미가 과연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 의미는 같고 결합하는 어기의 음운 환경이 다른 것뿐인지에 대해 연구자별로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들을 모두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풀이하며 결합 어기의 정보만을 아래처럼 표시하고 있다.

- (9) 새-: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ㄴ’일 때))
새까맣다, 새파랗다, 새빨갳다
- (10) 셋-: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ㄴ’일 때)) / 셋노랗다, 셋노란
- (11) 시-: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ㄴ’일 때))
시뻘겍다, 시꺼맣다.
- (12) 잇-: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ㄱ, ㄴ’일 때)) / 잇누랗다, 잇멀겍다.

그러나 송철의(1992)에서는 ‘새-’와 ‘시-’, ‘셋-’과 ‘잇-’은 각각 명암과 농도의 대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하였다.

	明	暗
淡	새	시
濃	셋	싯

『새우리말큰사전』에서도 이들의 의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새까맣다’는 ‘아주 짙게 까맣다’로 ‘셋까맣다’는 ‘더할 수 없이 까맣다’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차이를 현대의 언중들이 모두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원래 이 접사들은 고유어 어기와만 결합하였으므로 ‘새분홍, 싯초록’ 등의 예는 아주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데, ‘새’와 ‘시’가 결합하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와 ‘시’의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음성적인 요인도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데, ‘더 진하고 색감이 강한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음성적으로도 더 강한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므로 [새뽀라], [새뽀홍]으로 소리날 수 있는 ‘셋’과의 결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⁶⁾

말뭉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는 ‘보랏다, 초 다’와 ‘보래지다, 초래지다’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선영(2008)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들을 ‘아동어’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아동어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 언중들에 의해서도 꽤 많은 예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3) ㄱ. 과연 보랏다못해 까만 포도를 따 먹을 수 있을까?
 ㄴ. 흰없이 파랏고 초롱고 하얗던 것 같아.
- (14) ㄱ. 에어컨 앞에 5분만 있어도 바로 손톱이 막 보래지고 비오는 날이면 완전 덜덜덜 땀니다.
 ㄴ. 광합성을 하는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가 다 초래지는 기본이다.

6) 이 때 ‘새’가 관형사 ‘새’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언중들이 ‘새’와 색채어와의 결합을 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새보라, 새분홍’ 등은 마치 ‘새로운 보라색, 새로운 분홍색’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양/-얼’ 파생 및 ‘-아지다’와의 결합은 1차 기본 색채어와만 가능하므로 이 예문들이 문법에 맞는 예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4ㄱ, 15ㄱ)의 ‘보랏-’과 ‘보래지-’는 꽤 많은 예문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⁷⁾ 이는 1차 기본 색채어의 파생에 유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송원용(2005: 21)에서는 새로운 단어가 어휘부에 저장된 어휘들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유추라는 추론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랏다’는 어휘부에 저장된 ‘파랏다’와 ‘노랏다’라는 어휘에 기반한 유추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색채어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이들의 실제 사용 양상을 관찰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빨강, 파랑, 노랑, 까맣, 하양’의 5색을 위주로 하여 전개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주황, 연두, 초록, 청록, 남색, 보라, 자주, 갈색, 회색’과 같은 어휘들도 한국어 색채어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어휘로 파악하고 이들을 ‘2차 기본 색채어’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이들 색채어는 한자어가 대부분이지만 1차 기본 색채어와 같은 활용 양상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항상 ‘색’과 결합하여 쓰이는 ‘남, 갈, 회’는 1음절 한자어 어근이 가질 수 있는 접사적인 특성을 보여 다른 색과 결합할 수 있는데, ‘갈’과 ‘남’은 나타내는 색상의 특성으로 인해 한정된 색상의 색채어와만 어울렸지만 ‘회’

7) 김선희(2010: 155)에서는 한 촌락 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색에 대한 민속 설명’을 통해 사람들이 색채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다른 색으로 설명되지 않고, 다른 색의 설명에 비교 기준으로 잘 인용되며, 많은 범주들의 공통 속성이 된다’ 등의 특징을 ‘기초 색채 범주의 의미 진술 특징’으로 삼았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령층에서 ‘흰색, 검정, 빨강, 노랑, 녹색, 파랑, 갈색, 보라’가 색채의 기초 범주가 된다는 점을 관찰하고 있다. 이는 ‘보랏다’가 아동어로 지적되거나, 상대적으로 자연령층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로 보인다. 자연령층에서 ‘보라’를 ‘노랑, 파랑’과 같은 기본 색채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파생형도 같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다.

는 다양한 색상의 색채어와 어울릴 수 있었다. 또 더 진하고 선명한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유어 접두사 ‘쌔-, 싯-’, 또는 한자어 접사 ‘선-’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한자어는 한자어 접사 ‘선-’과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사용 양상에서는 ‘쌔-’와 결합하는 2차 기본 색채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모든 색채어가 ‘쌔-’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었고, 색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어느 접사를 선택하는지가 달랐다. 또 더 강한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 더 강한 어감의 접사를 사용하는 양상을 포착해 낼 수 있었다. 2차 기본 색채어는 대부분이 한자어로서 음성상징에 따른 자음 교체나 모음 교체를 통해 색상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없었지만, 접두사의 선택을 통해 나름의 색감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더 강한 어감을 나타내기 위해 색채어가 ‘새-’나 ‘시-’가 아닌, 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타날 수 있는 ‘쌔-’를 선택하는 것은 일부나마 음성상징을 활용하고자 하는 언중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어 색채어는 한국어 화자들의 시각적인 인식과 그것의 언어적 표현체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본고는 기존 색채어의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2차 색채어들과 그들로부터 형성된 합성어 및 파생어를 살펴봄으로써 색채어 연구의 저변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이들 새로운 합성어 및 파생어들은 아직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지는 못하였지만 구어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으므로 이들의 독특한 합성어 형성 및 파생어 형성의 양상들은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자료들인 합성어와 파생어들이 단어로서 얼마만큼의 확고한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 갈, 회’의 지위와 이들의 합성 양상 및 2차 색채어 파생어들의 의미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한국어 색채어가 어떤 방향으로 발달해나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관(1998), 「‘푸르다’와 ‘파랗다’」, 『한국문화』 22, 한국문화 연구소, 15-50.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 동아.
-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과(2005), 『병아리색, 키위색이 표준 색이름으로: 우 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 KS 규격으로 완성』, 사업자원부 홍보관리실.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선희(2010), 「한국의 색채 범주 구분체계와 그것의 발달 과정」,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왕한석 엮음, 교문사, 141-196.
- 김주필(1995), 「15세기 색채형용사의 분화형과 그 통시적 특성」, 『강신항 박사 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태학사, 7-27.
- 노명희(2004),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태학사.
-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제6호, 한말연구학회, 134-166.
- 송원용(2005),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 신기철·신용철 편저(1989),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이데아.
- 신현숙·김영란(200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색채어 어휘 정보」, 『이중언어 학』 제24호, 이중언어학회, 151-175.
- 엄훈(2000), 「한국어 색채어의 표색 체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429-458.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병기(2002), 「색채명사의 발달」, 『형태론』 4-2, 형태론 편집위원회, 279-299.
- 이선영(2006), 「후기 중세국어 색채어의 어휘적 특징과 의미」, 『국어학』 제 47호, 국어학회, 236-263.
- _____(2008), 「근대국어 색채어의 몇 가지 특징」, 『어문연구』 제36-4호, 한국 어문교육 연구회, 131-151.

- 이은섭(2006), 「KS 규격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에 대한 일고찰」, 『정신문화연구』 29-1호, 105-125.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정인호(1999),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2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61-79.
- 정재윤(1988), 「우리말 색채어의 낱말발」, 『국어교육』 6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05-131.
- Berlin and Kay(1969),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Berkeley, New York: Academic Press.
- Saeed, J.(2003), *Semantics*, Blackwell Publishing.